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10월 19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2. 관용어 ‘발이 넓다’, ‘손이 크다’에 대해 공부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오일장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를 복습하고 읽을 수 있다.

5. 복벌 정책과 효종의 죽음에 관련된 글을 읽고 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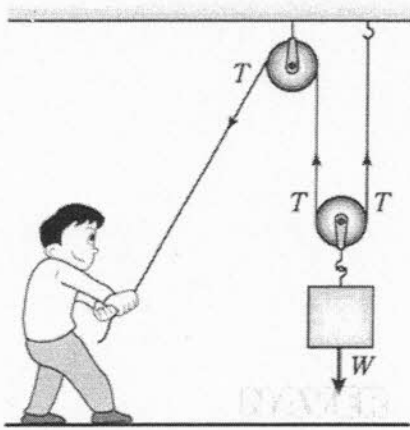
교재 : 중학교 생활국어 2-2(대교), 100대 민족문화 상징,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초등한자,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한국사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족지시험 숙제 확인 및 숙제 내용 공부 -한자 답맞추기, 오일장에 관한 읽기자료 소리내어 읽기
2교시 10:15-11:00	작문 분반 수업 : 조사의 사용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교과서 68~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쓰기
4교시 12:00-12:40	역사수업(복벌 정책과 효종의 죽음) 관련 영상보기
숙제	1. 한자 문제 풀어오기 2. 관용어 읽고 공부해오기 3. 읽기자료(수원화성)읽어오기 4. 어휘 공부해오기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족지시험** 합니다.

(뒷면에 어휘) ↓↓↓

1. 앞가림 : 제 앞에 닥친 일을 제힘으로 해냄.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걱정을 한다.
2. 여류작가 : a lady writer 요즘 문단에서 명성을 날리는 작가 중에는 여류 작가가 많다.
3. 사은품 : free gift 각 백화점은 자동차나 컴퓨터 등 고가의 상품을 사은품으로 내걸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한다.
4. 시화전 : an exhibition of illustrated poems 이번 축제 때에는 우리 문예부에서 시화전을 열기로 했다.
5. 도르레 : pulley 거중기는 도르레를 이용해서 힘을 적게 들고도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이다.



6. 수레 : wagon 그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올랐다.
7. 고리 : high interest (rate) 고리로 돈을 빌리다
8. 물거품이 되다 : come to nothing 이러다간 내 꿈이 물거품으로 돼 버릴지도 모른다.
9. 북벌 :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 북벌하기 위하여 북방 국경에 군대를 파견했다.
10. 수모 : humiliation, indignity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초기에는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다.

수원 화성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수원 화성

수원 화성은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정조의 명에 의해 지어진 신도시예요. 수원은 예로부터 좋은 무덤터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정조는 수원에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꾸미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에게는 다른 곳에 마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이 자리 잡은 곳이에요.

마을을 건설하고 나서 주민들이 늘어나자 도시 이름을 화성이라고 짓고 성곽을 쌓았어요. 성곽을 쌓는 일은 당시 이름을 날리던 실학자들에게 맡겼어요. 실학자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탐구하던 학자들이에요.



★ 수원 화성은 독특한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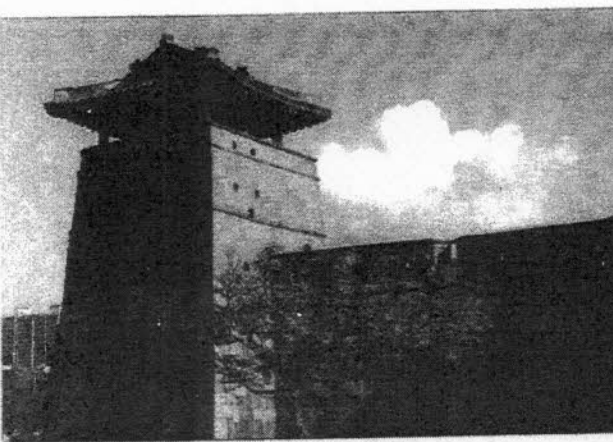
18세기에 완공된 우리 문화유산이지만 동서양의 군사 시설 이론을 잡 배합시킨 독특한 성으로서 뛰어난 방어 기능이 가지고 있어요.

약 6킬로미터에 달하는 성벽 안에는 4개의 성문이 있으며, 모든 건축물의 모양과 디자인이 각기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성곽의 전체 설계는 정약용이 맡았어요. 그리고 성곽의 여러

▼ 수원 화성의 팔달문.





▲수원 화성 서북 공심돈



▲수원 화성의 화홍문

시설에는 당시 유명했던 실학자 박지원의 의견에 따라 벽돌이 사용됐
지요.

이 때 정약용은 백성들의 힘을 덜어 주기 위해 돌을 나르는 기계인
'거중기'를 발명했어요. 거중기는 도르레를 이용해서 힘을 적게 들이
고도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기계예요. 또 짐을 싣고
이동하기 쉽게 하는 '유형거'라는 수레를 만들기도 했어요.

수원 화성은 중국, 일본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산성으로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요. 또 시설과 기
능이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 때문에 수원 화성은 지금도
동양의 성 중에 가장 훌륭한 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현재 수원
화성은 사적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1997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답니다.

<읽기자료> 오일장, 허준과 동의보감

1. 옛날에는 보통 ()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렸다.
2. ()은 각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전국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조선 시대의 상인이다. 붓집 장수, 등짐장수라고도 했다.
3. 허준은 스승인 ()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4. 왕을 보살피는 의사를 ()라고 한다.
5. 임진왜란이 일어나 ()가 피난을 갈 때는 허준이 옆에서 건강을 돌보았다.
6. 허준이 지은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는 약재로 우리나라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

<어휘>

* 문장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자만, 유용, 어의, 재난, 돌팔이, 충고, 대면, 제약, 감염, 명의,

1. 내가 그 사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 단체 생활에는 여러 가지 ()이 있기 마련이다.
3. 도서 목록은 책을 찾는 데 아주 ()하다.
4. 자연에 의한 ()은 피하기가 어렵다.
5.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이 되었다.
6. 그 한의사는 아무 약이나 지어 주는 ()가 아니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발이 넓다

발을 꿰다

손이 크다

손이 모자라다

1 가: 손님은 10명인데 음식은 20인분쯤 되는 것 같아요.

나: 제가 _____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요.

2 가: 상우 씨, 일 끝난 후에 같이 맥주 마시러 가요.

나: 미안해요. 저 요즘 건강 때문에 술집에 _____.

3 가: 지금 시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_____.

나: 좋아요. 무슨 일부터 할까요?

4 가: 출입국 관리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선영 씨가 _____ 니까 연락해 보세요.

5 가: 이 식당은 음식 맛은 좋은데 양이 너무 적어요.

나: 맞아요. 주인이 좀 더 _____ 면 좋겠어요.

6 가: 민수 씨는 _____ 주위에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지요?

나: 네, 성격이 활발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3.북벌 정책과 효종의 죽음>

1. 삼전도의 수모를 겪자

“내 반드시 삼전도의 수모(受侮)¹⁾를 갚으리라.”

효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 청나라를 칠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에 걸친 전쟁으로 기울어진 나라 살림부터 일으켜야 했어요. 효종은 대동법을 확대 실시해 백성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줄여 주었어요. 대동법은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을 쌀로 내게 한 제도예요. 조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효종 때는 충청도와 전라도 일부 지역까지 확대되었어요.

대동법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물건으로 내야 했어요. 대동법은 이것을 쌀, 동전, 배 등으로 내게 하고 농사를 짓는 땅의 넓이에 따라 많고 적음을 정한 거예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백성들은 각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바치는 공납²⁾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어요. 또한 땅이 없는 사람은 공납을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크게 환영을 하였지요.

세금을 쌀로
내니까 참
편리하네요.



한편, 효종은 농사짓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어요. <농가집성>은 예전부터 전해지던 농사책을 하나로 모으고, 임진왜란 이후 달라진 농촌 사정에 맞춰 새로운 농사법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군사력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선 인조가 청나라를 치기 위해 만들었던 어영청³⁾의 힘을 키웠어요. 이 부대는 왕이 직접 거느리는 부대로, 청나라를 치려는 계획인 북벌(北伐)⁴⁾ 정책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훈련도감에 군사를 더 뽑았고,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군량미도 여러 곳에 나누어 모아 두도록 했어요.

“나는 십 년 안에 북벌을 이룰 것이다. 만약 십 년 안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는 가망이 없는 일이 되리라.”

효종은 차근차근 북벌을 준비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인물들을 뽑았어요.



※ 잠깐 퀴즈

농사짓는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효종 때 간행된 책은 무엇인가요?

정답: 농가집성

2. 붓 속의 임명장

‘청나라를 치려면 믿을 만한 장수가 필요하다.’

효종은 많은 신하들이 청나라를 치는 데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약해진 조선의 힘으로는 이미 강대해진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또 청나라와 싸우느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文物)⁵⁾을 받아들여 나라 살림을 일으키는 것이 바른 정치라고 여겼어요. 이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효종은 자신의 뜻을 충실히 따라 줄 장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효종이 명을 내렸어요.

“모든 무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여라!”

이어 궁궐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따로 불렀어요.

“너희들은 화살의 축⁶⁾을 뺀 다음, 무신들이 들어오는 대로 활을 쏘도록 해라.”



잠시 후, 무신들이 하나 둘 궁으로 들어왔어요. 병사들은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화살을 쏘았어요. 무신들은 깜짝 놀라며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지 않았어요.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맞으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는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포도대장 등을 지낸 이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옷 안에 갑옷을 겹쳐 입고 있었지요.

“날아오는 화살을 용감하게 맞다니, 참으로 대단하요.”

효종은 이완을 굳게 믿고 붓 한 자루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지금부터 충성으로 나를 도우라!”

집으로 돌아온 이완은 붓을 놓고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어째서 무관인 나에게 칼이 아닌 붓을 내리신 걸까?”

한참을 고민하던 이완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갔어요. 이완은 앞에 있는 붓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그러자 쪼개진 붓대 속에서 흰 종이가 나왔어요. 그것은 자신을 어영 대장으로 임명(任命)²⁾한다는 임명장이었어요.

“북벌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하라는 뜻이로구나!”

이완은 임명장을 보며 효종이 얼마나 청나라를 치고 싶어하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효종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완은 실제 군사를 다루었던 경험을 살려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갔어요.

※ 잠깐 퀴즈

효종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붓 속에 든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 이완

3. 사라진 십 년의 꿈

효종이 북벌을 준비한 지 십 년이 지났어요. 군사를 키우고, 군량미를 모았지만 정작 신하와 백성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않았지요.

“가뭄이 들어 주름살만 늘어가는 판국에 청나라를 치라니 우리더러 두 번 죽으라는 소리군.”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도둑이 되는 게 낫겠소.”



가뭄으로 흉년이 들면서 살림살이가 더 나빠진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어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 중에는 산 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는 이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중국을 통일한 청나라의 힘은 점점 강해져 쉽게 청나라를 칠 기회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효종은 북벌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청나라를 칠 준비는 되었소?”

1659년 5월 어느 날, 효종이 이완을 불러 물었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청나라로 향하겠습니다.”

“종소. 오는 초닷새에 군사를 이끌고 청을 치도록 하시오.”

효종이 굳은 결심으로 뜻을 밝히자 이완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출병(出兵)⁸⁾을 하루 앞두고 밤잠을 못 이루던 이완에게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전하께서 위급하시니 속히 궁궐로 돌아 하십시오.”

이완은 서둘러 대궐로 갔어요.

“전하, 이대로 가시면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완은 자리에 누운 효종을 부르며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효종은 끝내 새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십 년 동안 키워 온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4. 내용 정리

효종은 청나라를 칠 생각을 품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의 살림을 일으키고 군사의 힘을 키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사력을 키우고 군량미를 모았지만 청나라를 치려는 뜻으로 신하와 백성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십 년 동안 준비했던 북벌 계획은 효종의 죽음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북벌 정책과 효종의 죽음 (천재학습백과 초등 스토리텔링 한국사, 천재교육)

1 읽기

◎ 다음 글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까?

¹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지 결정할 때는 먼저 진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²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³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으려면 먼저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⁴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고 나서 그것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⁵그러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대부분이 자신의 인생 진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적이나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⁶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후회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기도 한다.

1.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주제)은 무엇입니까?

2. 위글에서는 전공 선택의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다르다고 합니까?

이상	현실

1 단락의 정의

● 단락

단락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문장들을 말합니다. 많은 수의 문장도 같은 중심 생각을 나타내면 한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단락 하나가 한 편의 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단락들이 모여 글 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앞에서 읽은 <전공 선택의 이상과 현실>은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다음 중에서 단락을 찾아보십시오.

가

내 인생의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세우는 것이다.


나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보다는 '이번 TOPIK 시험에서 4급을 따겠다.'가 좋은 목표이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후에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로를 정할 때에는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인기 있는 직업도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목표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대학에 왜 진학하고자 하는가? 왜 그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나 목표를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나의 인생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일, 길여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매일 꾸준히 공부할 때, 지금의 노력과 인내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단락의 형식

단락을 쓸 때 다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는 것을 골라  하십시오.

1. 제목은 ① 맨 왼쪽에, ② 가운데에, ③ 맨 오른쪽에 씁니다.
2. 이름은 ① 제목 윗줄 오른쪽에, ② 제목 오른쪽에, ③ 제목 아랫줄 오른쪽에 씁니다.
3. 단락의 첫 글자를 시작할 때에는 ① 왼쪽으로 붙여서, ② 오른쪽으로 한 칸 들여서 씁니다.
4. 한 단락 안에 있는 문장들은 ① 줄을 바꾸지 않고, ② 줄을 바꾸어 다음 줄에 씁니다.
5. 단락이 바뀔 때는 ① 줄을 바꾸지 않고, ② 줄을 바꾸어 다음 줄에 씁니다.

1. 다음 글은 단락의 형식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식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친구와 함께 의논하십시오.

전공 선택의 기준

모니카 돌로스

대학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에 들어가 보니 전공 공부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기도 한다. 자신의 적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는 직업,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따라 전공을 선택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적성을 잘 생각해 보고 나서 그것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1 좋은 단락의 요건

● 좋은 단락

단락은 여러 개의 문장들로 구성됩니다. 한 단락의 문장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 쓴 사람의 생각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1. 앞에서 읽은 <한국 대학생들의 최근 관심사>가 좋은 단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말해 보십시오.

● 좋은 단락

- ☐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썼습니까?
- ☐ 문장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 글 쓴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2. 다음 글들은 모두 좋은 단락이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고 좋은 단락이 되도록 고쳐 보십시오.

가

대학교 학생증이 바뀌고 있다. 대학교 학생증은 원래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학교 건물에 들어갈 때 출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증 안에 바코드가 있어서 도서관에 들어갈 때나 좌석을 예약할 때, 또는 책을 대출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학생증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는 기능과 교통 카드 기능까지 추가되었다. 교통 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모양은 일반적인 카드와 같은 것도 있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걸 수 있는 작은 액세서리처럼 생긴 것도 있다.

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점점 늘고 있다. 자원봉사 경력이 있으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못한다는 학생들도 많다. 그리고 대학에는 봉사를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가 많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에서 만든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다. 관심을 갖고 조금만 찾아보면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

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우체국과 은행, 여행사, 미용실, 안경점, 헬스장 등이 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쉬거나 공부할 수 있는 카페나 큰 서점, 유명한 패스트푸드 식당, 편의점이 들어온 경우가 많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도 있다. 또, 이런 자녀를 둔 직원이나 학생들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등을 볼 수 있는 공연장, 그리고 영화관과 박물관이 있는 대학도 생겨나고 있다.

2 주제 문장 쓰기

단락에는 주제 문장이 있습니다.

주제 문장은 글 쓴 사람의 생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1. 1-2의 글 가와 나에서 주제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십시오.

2. 1-2의 글 다에는 주제 문장이 없습니다. 다음 중에서 그 글의 주제 문장으로 적합한 문장을 골라 보십시오.
적합하지 않은 문장들은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 한국의 대학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 나는 친구들과 대학 캠퍼스를 구경하는 것이 즐겁다.
-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편의 시설과 문화 시설을 갖춘 생활 공간이 되고 있다.

3. 다음 단어와 표현을 이용하여 단락의 주제 문장을 써 보십시오.

미팅	이성 친구를 사귀다	인간 관계를 넓히다	좋은 기회
----	------------	------------	-------

보통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이 미팅을 많이 하는데, 미팅할 때는 같은 대학의 다른 전공 학생들과 만나기도 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기도 한다. 다른 전공이거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두 학생이 미팅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한 다음 한 사람은 남학생을 모으고 다른 한 사람은 여학생을 모은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수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남녀가 각각 세 명씩, 또는 다섯 명씩 만난다. 미팅에서 서로 마음에
 맞는 상대를 찾으면 미팅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사귄다.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도 넓힐 수 있다.

◇다음 두 문장을 알맞은 접속어를 이용하여 연결하십시오.

1. 대학 생활에서 전공 공부도 중요하다.() 선후배 관계도 중요하다.
2. 기숙사 생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 대학교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해 보는 것도 사회 생활을 준비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많은 선배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
4. 유행을 따르는 학생들은 돈을 낭비하기 쉽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접속어 뒤에 알맞은 문장을 쓰십시오.

1.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려면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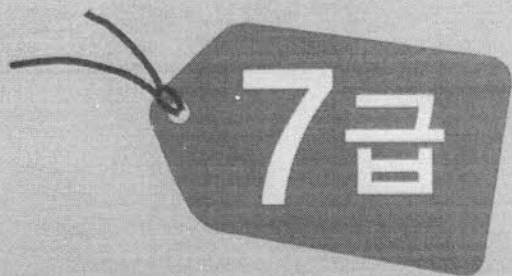
-
2. 대학생은 무엇보다도 전공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
3. 사람을 만나는 일은 경험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
4.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접속어를 쓰십시오.

교내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이 많다. 교내 아르바이트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학교 안의 일을 하다 보면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교내 아르바이트를 하면 인간 관계도 넓히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교내 아르바이트는 받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짧은 기간에 끝나는 일도
많다. 또 폭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 중의 하나이다.() 교내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그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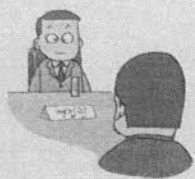


① 과정

한자능력검정시험

신체 익히기

신체와 관련된 한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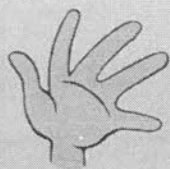
面

낯면



口

입구



手

손수



足

발족



力

힘력



命

목숨명



老

늙을로



少

적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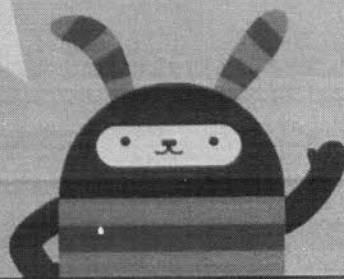
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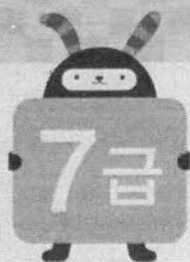
사내남



子

아들자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面

눈 → 面 → 面



사람의 얼굴을 본뜬 한자입니다.

훈낫 음면

面부수(총 9획)

面 面 面 面 面 面 面 面 面

필순에 따라 빈칸에 面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面	面	面	面	面	面	面
낫면	낫면	낫면	낫면	낫면	낫면	낫면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面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地面() : 땅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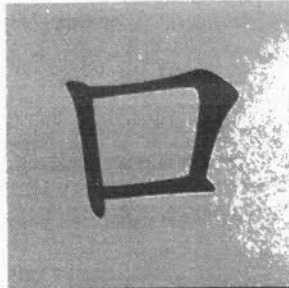
(地 : 땅 지)

·場面() : 어떤 장소에서 겉으로 드러난 면이나 벌어진 광경. (場 : 마당 장)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사람의 입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훈입 음구 口부수 (총 3획) 口 口 口

필순에 따라 빈칸에 口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口	口	口	口	口	口	口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입구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口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人口 () :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人 : 사람 인)

· 食口 () :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食 : 밥/먹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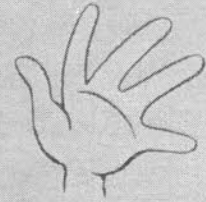
7급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手

→ 手 → 手



한 쪽 손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훈 손 음 수

手부수(총 4획)

手 手 手 手

필순에 따라 빈칸에 手를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手	手	手	手	手	手	手
손 수	손 수	손 수	손 수	손 수	손 수	손 수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手가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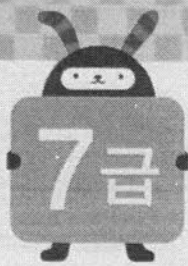
·手足() : 손발.

(足 : 발 족)

·木手() :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 따위를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木 : 나무 목)

手의 상대 반의어-足(발 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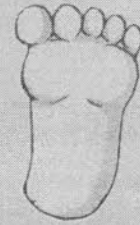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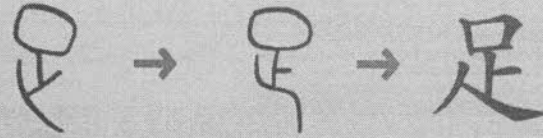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足



무릎에서 발까지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훈발 음죽

足부수(총 7획)

足足足足足足足足

필순에 따라 빈칸에 足を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足	足	足	足	足	足	足
발족	발족	발족	발족	발족	발족	발족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足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不足() : 충분하지 않음.

(不 : 아닐 불/부)

· 自足() :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自 : 스스로 자)

足の 상대 반의어-手(손 수)



빨리따기

월 일
이름

확인



힘을 준 팔에 근육이 불거진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훈 힘 음 력

力부수(총 2획)

力 力

필순에 따라 빈칸에 力을 쓰고, 훈과 음을 쓰세요.

力	力	力	力	力	力	力
힘 력	힘 력	힘 력	힘 력	힘 력	힘 력	힘 력

빈칸에 漢字(한자)의 음을 쓰고, 力이 쓰인 낱말을 읽어 보세요.

• 國力() : 한 나라가 지닌 정치, 경제 따위의 모든 방면에서의 힘. (國 : 나라 국)

• 力道() : 역기를 들어 올려 그 중량을 겨루는 경기. (道 : 길 도)

※ 力이 한자어의 맨 앞에 올 때는 '역'으로 읽습니다.



확인 학습 5



흐린 한자를 필순에 맞게 쓰고, 빈칸에 훈(뜻)과 음(소리)을 쓰세요.

1 이 도로는 地面이 고르지 않습니다.

훈

음

2 세계에서 人口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훈

음

3 솜씨 좋은 木手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훈

음

4 오늘날의 농촌은 일손이 많이 不足합니다.

훈

음

5 그 사업가는 自力으로 성공했습니다.

훈

음

대화



에릭: 지영 씨, 늦어서 미안해요. 길이 복잡하네요. 오래 기다렸어요?

지영: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에릭: 여기 분위기가 좋군요. 여기에 자주 와요?

지영: 네, 제가 파전을 좋아해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에릭: 그래요? 그럼 파전을 주문합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지영: 여기는 막걸리도 맛있기로 유명한데 한잔할까요?

에릭: 좋아요. 한잔합니다.

※ 한잔(을) 하다: 가볍게 술을 마시다

활용예문

- ▶ 오랜만에 시원한 맥주 한잔하는 게 어때요?
- ▶ 시험 끝난 후에 한잔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연락해.
- ▶ 가: 오늘은 제 생일이예요.
나: 정말 축하해요. 그럼 우리 한잔하러 갈까요?

새 어휘와 문형

☐ 복잡하다

☐ 기다리다

☐ 방금

☐ 파전

☐ 주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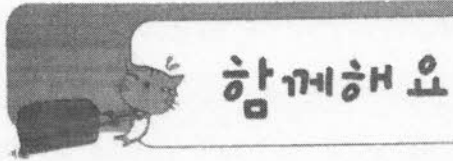
☐ 막걸리

☐ 한잔

☐ 오랜만

☐ 연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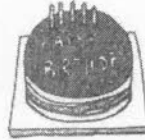
☐ -기로 유명하다



초대장을 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 초대장 ♡

친구들아! 내 생일 파티에 초대할게. 바쁘지 않으면 같이 한잔하자.



☆일시 : 20 △△년 △월 △일 오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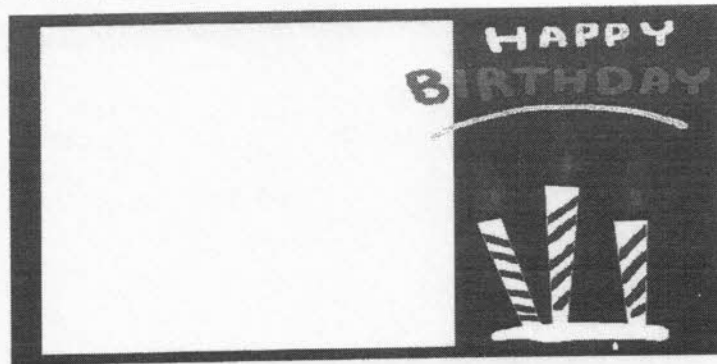
☆장소 : 한국대학교 동문 앞 '한잔해 호프집'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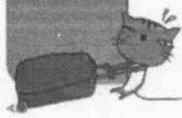
① 위의 초대장을 보고 생일 파티에 친구를 초대해 보세요.

② 여러분의 생일 파티 초대장을 만들어 봅시다.



한 걸음 더

- ▶ 한잔(을) 걸치다(=) 오늘 월급날이라서 친구들과 한잔 걸치고 왔다.
- ▶ 잔(을) 올리다(ㄴ) 술을 드리다
선생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 ▶ 한ㄹ
 • 우체국까지 한 20분쯤 걸릴 거예요.
 •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자주 못 만나요.
 •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대화



아사코 : 민수 씨,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민 수 : 고마워요. 아사코 씨는 시험 잘 봤어요?

아사코 : 아니요, 저는 엉망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민 수 : 힘내세요. 다음 시험은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아사코 : 정말요? 고마워요. 아, 민수 씨가 오늘 한턱내면 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민 수 : 하하하,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 한턱(을) 내다: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다

활용예문

- ▶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제가 한턱낼게요.
- ▶ 저번에는 현정 씨가 한턱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한턱낼게요.
- ▶ 가: 이번에 회사에 취직했어요.
- 나: 정말 축하해요. 그럼 한턱내야겠네요.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장학금 | <input type="checkbox"/> 축하하다 | <input type="checkbox"/> 엉망이다 | <input type="checkbox"/> 힘내다 | <input type="checkbox"/> 내다 |
| <input type="checkbox"/> 보너스 | <input type="checkbox"/> 취직하다 | <input type="checkbox"/> -것 같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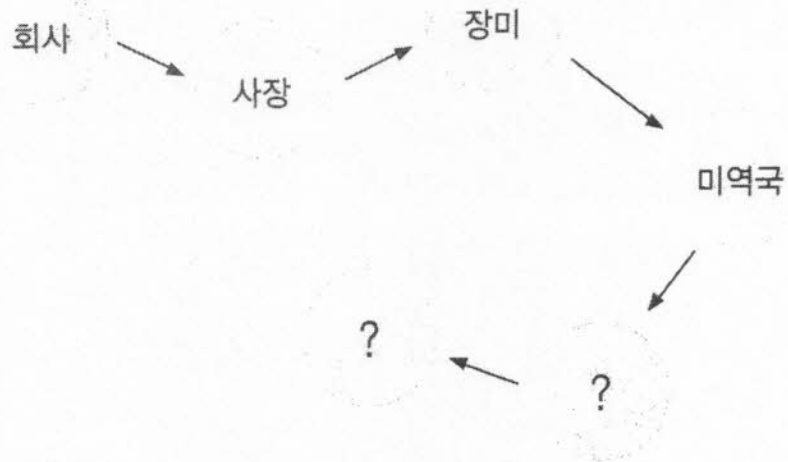
함께해요



친구들과 재미있는 '끝말잇기' 게임을 해 보세요.

게임설명

- 한 사람이 단어를 말하면 나머지 사람은 다같이 5, 4, 3, 2, 1을 크게 말하세요.
- 옆 사람은 5초 안에 다음 단어를 말하세요.
- 5초 안에 다음 단어를 말하지 못하면 한턱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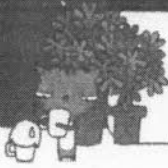
한 걸음 더

▶ 한턱(을) 쓰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한턱 쓸게요.

▶ 내다

- 학생증과 사진 두 장을 내일까지 내세요.
-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선생님께서 화를 냈어요.
-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한잔을 하다

잔을 올리다

한턱을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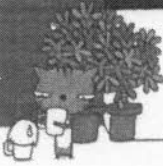
- 1 가: 민수 씨, 이번에 시험을 잘 보면 _____.
나: 네, 알겠어요. 기대하세요.
- 2 가: 교수님, 제가 _____.
나: 그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어.
- 3 가: 오늘 제 생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요?
나: 좋아요. 수진 씨가 _____, 그럼 저는 영화를 보여 줄
게요.
- 4 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_____.
나: 좋아요. 그런데 맥주를 마실까요? 소주를 마실까요?
- 5 가: 어제 저녁에 전화도 안 받고 어디에서 뭐 했어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친구들과 _____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한잔(을) 하다 / 한턱(을) 내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드세요.

준가: 사라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부모님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데 같이 갈래요?

사라: 좋아요. 그런데 오늘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예요?

준가: 아니요. 사실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속옷을 선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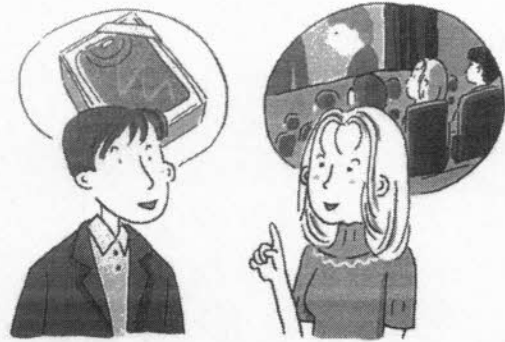
사라: 그래요? 재미있네요. 그럼 같이 백화점에 가 주면 한턱낼 거예요?

준가: 물론이지요. 사라 씨, 같이 한잔하는 게 어때요? 분위기 좋은 곳을 알고 있어요.

사라: 나는 맥주 마시는 것보다 준기 씨하고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

준가: _____

사라: _____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준기는 왜 백화점에 가요?
- 2 준기는 사라에게 왜 한턱을 내려고 해요?
- 3 여러분 나라에는 첫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새 어휘

☐ 결혼기념일

☐ 월급

☐ 속옷